

2025년 9월 ~ 12월 필리핀 선교편지

- 선교사: 김영권, 이상민 [자녀: 지혜(30), 가희(29), 이사야(22)]
- 파송기관: 기장총회 / 전북동노회 / 겨자씨선교회
- 선교지: 필리핀 불라칸(주) 루손 섬(주) 및 필리핀 전역
- 사역기간: 2025년 9월 ~ 12월

1. 감사 인사

-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필리핀에서 문안드립니다.
-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2025년의 9월~12월**까지 저희 사역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척박한 땅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생명의 싹이 트는 기적을 경험케 하시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의 물질로 저희와 함께 동역해주시는 파송기관인 기장총회와 전북동노회, 겨자씨선교회, 그리고 모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보내고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저희는 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선교소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며, 부어주신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기도와 후원의 동역을 더욱 간절히 구하고자 합니다.

2. 선교지 현황 및 사역 개요

■ 선교지 소개 (필리핀 개신교단협의회 현황-01 UCCP)

- UCCP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에큐메니컬(연합) 개신교 교단**입니다.
 - 설립:1948년
 - 성격:여러 개신교 전통이 하나로 연합된 **통합 교단**
 - 소속:필리핀 국가교회협의회(NCCP) 핵심 회원
 - 신학적성향: 메인라인 개신교, 에큐메니컬, 사회참여적

🔗 형성 배경

UCCP는 다음과 같은 교단들이 연합해 탄생했습니다.

- 회중교회(Congregational) 장로교(Presbyterian) 감리교(Methodist)
- 개혁교회(Reformed), 복음주의 전통 일부

🔗 특징: "교단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 주요 특징

- 사회정의·인권·평화에 강한 목소리
- 가난한 이들, 농민, 원주민, 노동자 인권 옹호
- 독재 시기(마르코스 정권)에 **민주화·인권운동**에 적극 참여
- 신앙과 사회 책임을 분리하지 않는 신학

신학적 정체성 요약

- 성경 중심이지만 **문자주의보다는 역사·사회적 해석강조**
- 복음 = 개인 구원 + 사회적 해방
- 에큐메니컬 정신 강함 (타 교단·가톨릭과도 협력)

함 한 줄 정리

- UCCP는 “연합과 정의, 신앙과 사회를 함께 붙드는 **필리핀 대표적 메인라인 개신교 교단**이다.
- 성향이 한국 개신교단 중 장로교 특히 **기장과 비슷합니다.**
- 그래서 UCCP는 **기장 및 예장(통합)과 MOU를 체결**하여 교단 교류 중에 있습니다.

■ 이번 회기(9월~12월) 집중된 선교사역 특징 및 필요이유

성경통독사역.

- 주요사역 중 하나인 성경통독사역을 진행했습니다.
- 성경의 창세기~요한계시록까지 핵심구절을 연결하여 하루동안 낭독하는 사경회입니다.

반동성애. 반퀴어신학 사역

- 기장교단과 교회의 미래, 기장선교사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이슈입니다.
-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기장의 헌법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선교현지에서 2013년부터 13년동안 선교지 선교사들에게 동성애 동성혼의 심각한 문제를 알려왔던 홍보사역입니다.
- 기장총회 기간에 기장소속 목회자 성도 동성애 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 사역을 돕고 홍보하면서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성과 결과에 대해 알렸습니다.

반동성애 대책위원회 활동 집중 및 홈페이지 제작사역

- 기장교단과 교회의 미래, 기장선교사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이슈입니다.
- 기장 한신대의 퀴어신학과 교단의 동성애 문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홈페이지를 3개월간 제작하였습니다.

선교동원 및 홍보사역

- CBS를 방문하여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알리고 선교지를 돕도록 홍보 교육하는 선교동원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 **지난 보고 이후 주요 변화 / 특이사항**

- 이번 회기 사역은 필리핀보다는 주로 한국에서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기장선교사회 총무직함으로 인권위원으로 총회참석 등의 이유가 있어서 한국을 방문했지만 계속 한국에서의 사역이 열렸고 진행되었습니다.

3. 주요 사역 내용 및 성과

■ **CBS 신우회 선교간증 및 선교동원사역(9월 3일, 수요일)**



- **CBMC글로벌 중소기업인회(김만환대표)**가 CBS 사옥에 있는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정오 시간에 CBS신우회와 함께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 기장총회(인권위원초청) 참석 차 한국에 방문하였는데 선교간증 및 설교를 부탁받아 참석하였습니다.
- 선교지에서 집중해서 사역하고 있는 성경의 복음과 전도, 필리핀 복음화 사역을 간증하며, 왜 복음증언과 전도가 중요한지, 핵심사역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제가 왜 이 사역으로 하나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지 간증하며,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복음과 복음전파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 중보기도시간에 동성애와 퀴어신학의 반성경적, 반신앙적, 반신학적 위험성을 알리고, 기장총회 목포노회에 의해 헌의된 '퀴어신학의 이단성 검증 및 총회차원 공식입장 표명'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긴급중보기도를 요청하여 중보기도를 진행하였습니다.
- 예배 후 신우회원들과 식사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관련자료보기(CBS신우회에배 유튜브)

<https://youtu.be/1YtAddVIPD4?si=xEh3HbjXliSTdBFv>

■ 110회 기장총회 참석 및 기장반동성에 피켓 평화 시위(9월 23-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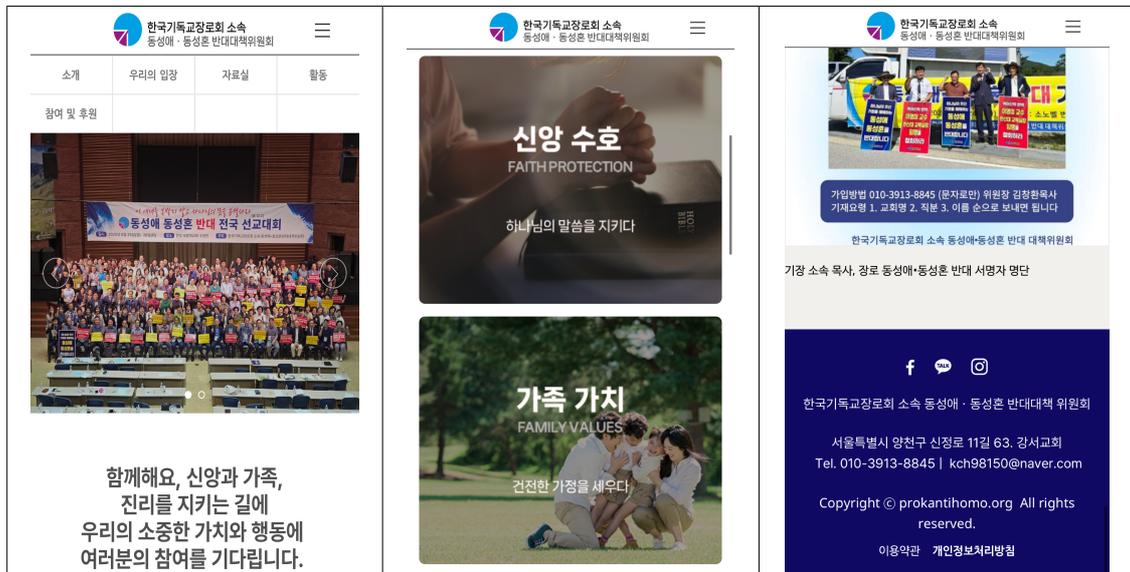
- 기장총회파송 선교사협의회 총무로서 총회언권위원으로 초청을 받아 110회 기장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첫날 성경봉독(구약)을 담당하여 개회예배 성경봉독으로 섬겼습니다.
- 기장소속 목회자 성도 동성애 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첫날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에게 우리들의 뜻과 의지를 알리기 위해 평화적인 피켓 시위를 전국 각지에서 모여 온 목회자 및 성도들과 진행하였습니다.
- 대한민국헌법과 기장의 헌법이 정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결혼을 해체하고, 무엇보다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건강한 에덴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타니즘에 입각한 퀴어신학과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무엇보다 목포노회가 헌의한, '퀴어신학의 이단성검증과 총회차원 공식입장 표명'의 건이 상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간절한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대들은 220대 89표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조차 부결하였습니다.
- 이는 기장의 분열을 걱정하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헌법과 기장헌법이 정한 것조차 위협받고 있는 이 때에, 이런 미봉책으로 계속 남겨둔 다는 것은 결국 총대들이 걱정하는 기장의 실제적 분열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교권(공예배)을 지키기 위해, 일제 앞에 무릎꿇고 동방요배(천황우상숭배)를 교회 안에서 허락하며, 진리의 신앙의 본질 버렸던, 기독교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참담한 심정 이었습니다.
- 가장 심각한 문제는 퀴어가 무엇인지, 동성애 동성혼이 왜 이렇게 기독교신앙과 목회적 영역에서 심각한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였습니다. 또한 한국교단 중 반성경적인 동성애. 퀴어신학에 대해 술에 물탄 듯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 선교현장에서 실제적인 위협은, 교단 설립 초창기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로 이단규정을 당했던 아픔이 있었던 교단으로서 이제 또 다시 이 문제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당하고, 그로 인해, 기장선교사들의 선교에 큰 타격이 미칠까봐 심히 걱정되고 염려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보기(크리스천투데이 기사)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0970>

■ 기장소속 동성애 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 집중활동 및 홈페이지 제작



- 기장총회에서 목포노회 '퀴어신학 이단성 검증과 총회차원 공식입장 표명' 현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에서 대책위원회에서는 심각하게 향후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 두 가지 핵심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책위원회에 대한 극단적 극우프레임에 대한 해명문제와 기장인들의 원할한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 하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기장반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부패한 극단적우파수구정치세력 및 극우개신교 광화문아스팔트 집단과 긴밀하게 결탁된 정치프레임을 씌어, 성경과 기장헌법에 입각한 순수한 반동성애 운동을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혐오와 차별집단'으로 몰아가며 '환대와 온전한 포용 목회자 일동' 명의로 총대원들에게 메시지에 대해 반박성명서를 작성하여 기장 목회자 및 장로들에게 발송하는 일이었습니다.
- 여기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대책위 임원들과 조율을 하였고, 기장목회자 3,000명 이상과 장로 670여명에게 대책위의 입장과 성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또 다른 하나는, 원할한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총회 홈페이지는 새롭게 개편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따라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던 자유게시판 없어져버렸습니다. 동성

애에 대한 건강한 논쟁 자체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린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자유를 외치던 기장신학과 총회의 입장은, 이런 논쟁 자체를 교단분열거리제공이란 명분으로 차단시켜버린 자기 모순적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 그래서 동성애와 퀴어신학의 반성경적, 반신학적 문제를 알리고, 기장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을 결의하였고 제작 기획과 관리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제작과 수정을 통해 홈페이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보기(기장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주소)

<https://prokantiuomo.org> 또는 <https://기장반동성애.org>

4. 겪고 있는 어려움과 교훈

■ 복음전도차량 구입의 어려움과 교훈

-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선교지에서의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 특히 사역을 위해 발이 되어주어야 할 차량 문제가 저희의 가장 큰 기도제목이자 어려움이었습니다.
- 16년 된 저희 선교 차량은 이제 너무 낡고 지쳐, 언제 어디서 멈춰 설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 광활한 불라칸과 루손 지역의 여러 교회와 사역지를 방문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필수적이지만, 노후된 차량은 잦은 고장으로 저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 한적한 시골길에서 갑자기 차량이 멈춰 서거나, 바퀴가 빠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아찔한 순간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 안전한 차량 없이는 사역의 확장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을 안고 사역지를 향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 복음전도사역을 위한 어려움과 교훈

-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희가 사역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전 세계 한인선교사님들과 현지 리더십들에게 그 복음의 진수를 전달해 드려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언제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를 건축하거나 구제사역하는데에는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지만, 반면에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 교회의 본질인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데에는 아직까지 별 관심과 후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허락된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가슴과 열정은 있는데, 영적전쟁을 크게 감당할 탄환과 장비들이 넉넉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 즉, 복음전도사역을 후원하거나 함께 연대 동역할 동역자와 후원자가 꼭 필요합니다.

- 하지만,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아직 저희들이 더 준비되기를 바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허락해주신 만큼, 작은 사역 하나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 기도제목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희의 기도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 사역을 위한 기도

▪ 연합과 협력 사역

복음전도로 훈련된 필리핀 리더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다른 현지 리더십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사역에 연합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 전도선교차량 구입

낡고 노후된 차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역 기동성을 위해 선교 차량이 후원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주시요.(기도차종: 스타리아, 중고 3,000만원대)

▪ 복음전도 협력 및 동역자

복음전도사역을 후원하며 함께 사역현장을 도울 수 있는 선교협력자 및 동역자가 생길 수 있도록.

▪ 복음전도 훈련사관학교 건립

성경의복음전도 훈련사관학교(블라칸)를 세워서 현지리더십들에게 복음전도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 가족을 위한 기도

- **아내 이상민:** 가정지킴과 사역을 위해 영육간에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 **첫째 지혜:** 하나님보시기에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 **둘째 가희:** 가희가 12월 20일로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원래 한국입국 목적인 디지털 펴를 이제 잘 배울 수 있도록.
- **셋째 이사야:** 현지대학 졸업반입니다. 졸업논문 잘 마무리하도록. 전공인 멀티미디어 특기를 살려, 지원 할 홍보장교(공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 개인을 위한 기도

- **오직 한 길! 복음 전도 훈련과 영혼 구원 사역에 더욱 집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 **날마다 강건한 영성과 건강한 육체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간 및 췌장 기능이 정상화 되어 당뇨가 치료되도록.**

6. 향후 계획 및 비전

■ 2026년 단기 계획

■ 한국교회에 단기선교팀의 단기선교 패러다임 슈프트를 위해 홍보 및 워크샵

현재까지 교단을 초월하여 대부분의 단기선교가 단지 NGO같은 구제 및 봉사활동, 크리스천 문화 퍼포먼스활동과 현지 역사.문화체험, 교회탐방 정도가 아니라, 복음전도훈련을 통해서 단기선교팀이 직접 복음전도할 수 있는 진정한 단기선교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바울선교회훈련원 선교사훈련생(필리핀, 한인) 복음전도훈련 세미나

바울선교회에서 훈련하는 선교사 훈련생들을 선교와 목회사역의 핵심인 성경의 복음과 전도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리핀훈련생들은 훈련된 현지목회자 코디네이터가 훈련하고, 한인선교사훈련생들은 저희가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한인교회 및 한국교회 목회자부부를 위한 복음전도훈련세미나 및 성경통독 사경회

3년간 기도하면서 연기해왔던 한인목회자부부를 위한 성경의 복음과 전도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성도들의 영적 생명이 살아납니다. 선명하고도 원초적인 복음을 목회자 부부가 먼저 받아서, 목회 현장에 설교, 성경공부, 자체 사경회, 복음전도훈련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 장기 비전

■ 성경의 복음과 전도를 통한 필리핀 루손 및 민족복음화

훈련된 필리핀 목회자들이 주축이 되어 불라칸 지역을 넘어 루손섬 전체, 나아가 필리핀 모든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현지인 지도자들이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선교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 성경의복음전도훈련사관학교 건립

효과적인 복음전도훈련을 위해서는, 베이스캠프가 필요합니다. 불라칸지역은 저희의 핵심 사역지역이고, 5년 후 필리핀 국제공항이 운항되게 될 루손 섬 허브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루손지역 곳곳에서 필리핀 목회자들이 와서 숙식을 하며 복음전도훈련을 할 수 있는 복음전도 훈련학교를 세우기를 위해 기도 중입니다.

■ 핵심구절 성경통독 한글교재를 영어로 번역

영어로 번역되면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성경의 복음전도 사역으로 인해 영어번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지만, 영어교재가 출간된다면, 성경통독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7. 맺음말

- 사랑하는 동역자 및 동지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울고 웃으며 필리핀 땅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귀한 사랑을 흘려보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의 헌신과 동역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희도, 이 땅의 작은 열매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 앞으로도 저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동역자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2월 3일

필리핀에서,
주님의 작은 종, 김영권, 이상민 선교사 드림